

# 주시경 문법의 문법 모형 연구(2)\*

- 초기 문법서를 중심으로 -

박 종 갑\*\*

## < 목 차 >

- I. 서론
- II. 언어관과 문법관
  - 1. 언어관
  - 2. 문법관
    - 1) 원체와 본음과 법식
    - 2) 天然의 理勢
- III. 방법론적 논리성 : 분석상과 체계성
- IV. 통사론적 형태론의 출발
- V. 결론

## <Abstract>

A Study of the Grammatical Model of Ju Si-Gyeong's  
Grammar(2):with emphasis on his early works

Bak Jong-Gap

This paper undertakes to figure out the model of Ju Si-Gyeong's grammar in its critical reading of his early works. For this purpose, it studied his perspective on language and grammar, the research objects of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한민족어문학회 2003년도 전국학술발표대회(11월 1일)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지정 토론자로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권재선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권선생님께서 주시경 이전의 학설과 주시경 학설의 영향 관계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 이러한 점은 다음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 영남대학교 교수

the grammatical the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methodology. There is a brief statement from Ju that language is a combination of sound and meaning. He put an stress upon the extra-linguistic functions of language by saying that it is a basis upon which society works and is formed. He tried to search for grammatical prescriptio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regarding it as the criterion of the linguistic activities of speakers. In analyzing word-sound, Ju divided the whole into elements, synthesizing elements into the whole systematically. Ju thought of the syntactic function important in the morphological research.

## I. 서론

국어 문법에 대한 주시경의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 최초의 문헌은 190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國文文法』이고, 주시경의 최초의 저서는 1906년에 간행된 『대한국어문법』이다. 『國文文法』은 우리말의 소리와 글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는 音學 부문과 품사론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국어문법』은 음학 부문만 있는데,<sup>1)</sup> 음학 부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 이 두 문헌에는 말과 글에 대한 견해를 문답식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sup>2)</sup>

- 
- 1) 주시경의 음학 연구는 『국문문법』, 『대한국어문법』 단계가 초기에 해당되고, 『국어문전음학』은 비록 공시론과 통시론이 섞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소 체계화된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말의 소리』가 최종 완결판에 해당된다(박영환, 1985). 『대한국어문법』의 국어학사적 의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박태권(1978)을 참고하라.
  - 2) 『國文文法』은 주시경이 尙洞青年學院에서 가르칠 때의 수업 내용을 김만겸(金萬兼)이란 학생이 필기한 노트이다.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39책에 그것의 영인본과 판독본이 아울러 있고, 譯註로 김민수(1988)가 있다. 『대한국어문법』은 주시경이 같은 학원에서 교재로 한두 장씩 나누어 주던 것을 묶은 것으로서, 인쇄되지 않고 유인되어 나온 일종의 私刊本이다.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39책에는 영인본과 판독본이 있다. 특히 이현희(1989)의 상세한 譯註는 이 책의 내용

이상의 두 문헌은 우리말의 문법(말소리 연구 포함)에 대한 주시경의 초기 학술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문헌을 통하여 초기의 주시경이 우리말을 연구하면서 지향하고자 했던 문법의 큰 열개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당 문법가가 취하고 있는 언어관과 문법관, 문법론의 연구 대상, 연구 방법론 등을 문법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sup>3)</sup>

## II. 언어관과 문법관<sup>4)</sup>

### 1. 언어관

본고에서는, 박종갑(1994a)에서처럼, 언어관을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언급한다. 첫째 관점은 언어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 관점은 언어의 대외적 기능에 대한 것이다.

#### (1)

일문 말이 무엇이뇨

답 뜻을 표하는 것이니이다

삼문 말로 뜻을 엇더케 달은 사람에게 통하느뇨

답 말은 곳 뜻을 구별하여 표하는 소리니 그 소리로 달은 사람에게 전하느이다.(pp.1-2)

위의 인용은 첫 번째 관점에서의 언어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앞의 두

---

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책의 표지에는 ‘國文講義 周時經’이라고 적혀 있으나 본문의 내용에 따라 『대한국어문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3) 필자는 몇몇의 논문(1994a, 1995b, 2002)에서 주시경 선생의 대표적인 문법서인 『國語文法』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해온 바 있다.

4) 제2장과 제3장에서 인용하는 원전은 주로 『역대한국문법대계』제1부 제3책에 있는 판독문 『대한국어문법』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일 때는 인용문 뒤에 페이지 표시만 하겠다. 본 논문의 모든 인용문에 부가되어 있는 특별한 부호나 밑줄 등은 필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문헌 모두 그 내용이 동일하다. 매우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언어가 소리와 의미의 결합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말은 곳 뜻을 구별하여 표하는 소리니’와 같은 언급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주시경의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전반적인 수준을 놓고 볼 때, 언어가 의미와 소리의 구성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본다.<sup>5)</sup>

언어의 대외적 기능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음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2)

이문 말이 쓸 디가 무엇이뇨

답 인류가 서로 인연되어 사는 고로 그 뜻을 서로 통하여야 할 것  
인디 말은 그 뜻을 통하는 디 쓰는 것이니이다.(pp.1-2)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 언어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시경은 언어가 인간 세계에서 갖는 역할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주시경은 언어를 일관되게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언어를 사회 구성과 운영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언어가 없으면 인간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움직여질 수도 없다고 했다. 이는 곧 언어를 사회 형성의 機關으로 보는 관점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그것을 뒷받침한다.<sup>6)</sup>

---

5) 국어 문법서에 언어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는 것은 최현배의 『우리말본』 첫째매의 출간을 전후한 시기인데, 대체적으로 언어와 문자의 관계를 확연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강복수,1972:131).

6) 주시경(1910)에서는, 언어를 사회 형성의 기관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형성 및 흥망 성쇠의 핵심적 요소로 본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분명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다: 天然의 社會로 國家를 成하여 獨立이 各定하니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 此性이 無하면 體가 有하여도 其體가 안이요 基가 有하여도 其基가 안이니 其國家의 盛衰도 言語의 盛衰에 在하고 國

(3)

말과 글은 한 社會가 조직되는 根本이요 經營의 意思를 發表호어 그 人民을 聯絡케 호고 動作케 호는 機關이라 이 機關을 잘 修理호어 精練호면 그 動作도 敏活케 할 것이요 修理치 아니호어 魯鈍호면 그 動作도 窒애케 호리니<sup>7)</sup>

주시경은 언어를 사회와 국가의 핵심적 요소로 본 만큼 말과 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말과 글로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면, 말과 글을 잘못 알면 그 만큼 사회 생활이 불안정하리라고 보는 생각은 당연하다. 다음의 자료가 그것을 보여 준다.

(4)

십육문 달은 나라 사람에게 이 나라 말을 잘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더 그 유익의 등분이 엇더호뇨

답 …… 이 나라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분수더로 효험  
이 잇느이다. 이럼으로, 사회를 잘 합호라면 또호 말을 잘 닦  
아 잘 가르치고 잘 배화야 잘 되겠느이다(pp.5-6).

## 2. 문법관<sup>8)</sup>

### 1) 원체와 본음과 법식

앞에서 소개한 주시경 문법의 두 문헌에서 음학 부문 기술의 핵심적 개념은 ‘원체(元體)’와 ‘본음(本音)’과 ‘법식(法式)’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주시경이 우리말 음학 부문을 기술하는 데 중핵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앞의 두 문헌 내용에 깔려 있는 주시경 선생의 문법관

---

家の 存否도 言語의 存否에 在한지라. 주시경(1908)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7) 『대한국어문법』은 68페이지 분량의 본문 뒤에 5페이지 분량의 글을 추가하고 페이지 표시도 따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추가된 부분 p.2에서 인용한 것이다.

8) 여기서 쓰는 ‘문법관’이란 용어는, 말소리 연구를 포함한, 좀 포괄적인 뜻으로, ‘언어 연구 관점’ 정도의 뜻이다.

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주시경은 이 지구상에는 자연적으로 여러 나라와 여러 인종이 있게 되었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경계와 인종에 따라 자연적으로 각각의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다.

(5)

地球上에 陸地가 天然으로 난호여 五大洲가 되고 五大洲가 또 天然으로 난호여 여러 나라 境界가 되니 인종도 이를 따라 黃白黑棕赤으로 난호여 … 그 天然의 境界와 人種의 各異함을 싸라 … 그 人種이 처음으로 싱길 때붙어 自然發音되어 그 음으로 物件을 일흠히고 意思를 表호어 次” 그 社會에 通用호는 말이 되고 …(p.32)

무릇 모든 만물 속에는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이치가 내재해 있을 것인데, 경계와 인종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말이 생겼으니, 그러한 말에는 각각의 원리와 이치가 내재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말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말 속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 그러한 생각이 녹아 있다.

(6)

此書 概論音理之天然及法式之自在 以設世誤之最難 庶爲辨正國文誤習之一資也 哉(이 책은 음의 이치가 원래 그러함과 말의 법식이 스스로 있음을 대략 논하여 세상의 오류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국문의 잘못된 습관을 바르게 고치는 데에 (이 책이) 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sup>9)</sup>(p.1)

말의 원리와 이치는 ‘음의 이치와 말의 법식’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주시경이 우리말을 연구하면서 찾아내고자 한 것이 그러한 ‘음의 이치와 말의 법식’이라는 데서 주시경의 문법관의 한 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 주시경의 문법관은 보다 실용적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

9) 번역은 이현희(1989)를 그대로 따랐다.

을 보면, ‘글자의 모양과 문법의 기준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의 법식을 일정하게 하려고 한다’는 언급이 있다.

(7)

盖此書 非圖準其字樣文法而正式也 將欲先解此義 而後自改正也(대개 이 책은 글자 모양과 문법의 기준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의 법식을 일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 먼저 이 뜻을 풀이하고 뒤에 스스로 고치려고 한다)(p.1)

말의 법식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 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쓴다면 언어의 사회 통합적 기능이 약화될 것은 당연하다. 주시경은 말 속에 어떤 원리가 내재해 있다고 보고, 그러한 원리를 찾아서 기준을 삼고자 한다. 각 나라의 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말과 관련된 어떤 원리와 이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과 같다. 주시경은 그러한 자연스런 원리나 이치를 ‘원체’, ‘본음’, ‘법식’ 등의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8)

우리나라 말을 캐어 본즉 ㄷㅌ표ㅅㅈㅈㅎㅑㅑ이 종성으로 쓰이는 말이 만오되 글에는 종성으로 쓰이지 안이ㅎ으로 말과 글이 상좌되어 그 말의 ‘원테와 본음과 법식’이 잘못되어 혼잡하고 문리를 잃어 글이 글 노릇을 하지 못하는지라(p.12)

원체는 ‘으뜸되는 형체, 본디의 형체’의 뜻인데, 여기서는 ‘본래의 모습’, 즉 ‘형태 음소를 그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 정도의 뜻이다(이현희, 1989). ‘본음’은 음운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 음소의 일정한 소리, 또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소리<sup>10)</sup> 등과 같은 개념이고, ‘법식’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분철하고, 어간의 형태를 일정하게 고정하여 적는, 이른바 ‘형태주의 원리’를 지킴으로써, 원체가 유지되고 본음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게 하는 어떤

10) 이른바 ‘아래아’라고 하는 ‘-’를 [아]로 읽는 것은 본음을 잊은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p.13)

원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9)

씨서도, 미더도, 마타도 ... 類는 連속하는 음은 옮으나 웃조 종성을 알엇조 초성으로 옮겨서 ‘씻’은 ‘씨’가 되고 ‘믿’은 ‘미’가 되고 ... ‘어도’나 ‘아도’는 ‘서도’ ‘더도’ ... 로 변했으니 상하조의 본음과 원체를 다 잃고 그 본조대로 각 〳 쓰 는 법을 잃음이요 ... (p.18).

위 인용문은 ‘씻어도, 믿어도’ 등을 ‘씨서도, 미더도’ 등과 같이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주시경의 비판이다. ‘씻’이 [洗]라는 뜻을 가진 말의 형태적 ‘원체’이고, 음성적 본음이며, ‘어도’가 [雖]라는 뜻을 가진 말의 형태적 ‘원체’이고, 음성적 본음인데, ‘씨+서도’처럼 쓰면 두 말이 섞인 것이 되니, 어간과 어미 모두 원체와 본음을 잃게 되었고, 원체와 본음을 유지하여 적는 법(→법식)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다. 이런 언술을 통해 그러한 세 가지 용어의 개념을 짐작할 수 있다.

주시경의 ‘원체, 본음, 법식’은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논리적 자연스러움’에 바탕을 두는 관점이다. 둘째는 문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구하는 관점이고, 셋째는 변화하기 전의 상태가 이상적이며, 그것이 현실적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가) 논리적 합리성

주시경은 표기법과 관련하여 어떤 글자들을 초성 표기에만 쓰고 종성 표기에는 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어떤 글자들 초성 표기에 쓰이면 반드시 종성 표기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자연한 리세’라고 했다.

(10)

이를 보매 큰 의심이 나는 것은 이 여덟즈와 달은 합음들과 쌍음들이 종성에 쓰이는 말들은 분명 잇을 썬 안이라 무슨 음이던지 초성에 쓰이면 반듯이 종성에도 쓰이는 것은 즈연흔 리세어늘 어기는 이 여덟즈는 종성에 쓰이지 안이흔다 홑은 그러치 안이홀 줄로 알되 …(p.14)

주시경은 우리말 자음 중,  $\text{ㄷ}$ 은  $\text{ㄷ}$ ㅎ의 합음이고,  $\text{ㅍ}$ 은  $\text{ㅍ}$ ㅎ의 합음이며,  $\text{ㅈ}$ 은  $\text{ㅈ}$ ㅎ의 합음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11)

水土슈토를 連讀하면 슌도와 같고 … 下品하품을 連讀하면 황븨과 같고 … 馬車마차를 連讀하면 망자와 같고 …(p.27)

‘슌도’, ‘황븨’, ‘망자’와 같은 어형은 우리말의 언어적 사실과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어형이다. 예를 들어,  $\text{ㄷ}$ 이  $\text{ㄷ}$  ㅎ의 합음임은 ‘좋다’가 [조타]로 발음되는 데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런데 ‘조타’에서 그것의 원체와 본음인 ‘좋다’를 역으로 추적해 가는 과정을 상정해 보면, 이는 후행 음절의  $\text{ㅌ}$ 에 있다고 생각되는  $\text{ㄷ}$ 과  $\text{ㅎ}$  중,  $\text{ㄷ}$ 은 남겨 두고  $\text{ㅎ}$ 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가져간 것이 된다. 이러한 논리를 합성어 ‘슈토(水土)’에도 적용하여, ‘토’의  $\text{ㅌ}$ 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text{ㄷ}$ 과  $\text{ㅎ}$  중,  $\text{ㄷ}$ 은 남겨 두고  $\text{ㅎ}$ 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가져가 ‘슌도’라는 어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참으로 특이하고 엉뚱한 기술이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고자 한 주시경의 문법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 방법론적 합리성

당시의 표기법적 혼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노력한 주시경은 이른바 ‘형태주의’에 해당되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똥다’란 단어를 예로 들 경우, 다음의 네 가지 방식 중, (a)의 방식이 ‘원체와 본음과 법식’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12)

- 法 (a) 덮어도 덮으면 덮고 덮는
- (b1) 더퍼도 더프면 덮고 덮는
- 俗 (b2) 덮혀도 덮흐면 덮고 덮는
- (b3) 덮퍼도 덮프면 덮고 덮는

(a)의 방식은 첫째,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분철하고, 둘째,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b)의 방식들처럼 사람에 따라 말에 따라 종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그러한 생각을 웅변하고 있다.

(13)

이런즉 속에서 이런 말을 씀은 원테와 본음과 법식에 하나도 옳을 것이 업고 또 규모가 불일하여 천만언을 짜라 변테흐니 번잡함이 측량홀 수 업슨즉 이를 다 갖쳐 받으게 호고자 호면 불가불 법이란 줄대로 홀 수밖에 업도다(p.19)

‘俗’과 같은 쓰임은 ‘규모가 불일하여 천만언을 짜라 변테흐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체계가 일정하지 않아 수없이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다. 이런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法’의 방식이 이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언급할 것은 이러한 ‘法’의 방식이 방법론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불가불 법이란 줄대로 홀 수밖에 업도다’와 같은 언급에서, 이론적으로는 여러 방식이 가능하지만, 효율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시경 선생의 인식이 드러난다.

(다) 과거 지향적 순수성

세 번째 관점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된 것인데, 변화하기 전의 상태가 이상적이며, 따라서 그것이 현실적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현실적 변화 이전의 상태를 바탕으로 말의 법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주시경 선생이 이른바 ‘아래 아’字라고 하는 ‘ㅏ’를 ‘ㅣ’와 ‘ㅡ’의 합음이라고



상을 다루고 있다. 앞에서 다룬 ‘원체와 본음과 범식’은 주로 표기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변동이나 변화 이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 여기서는 발음을 다루므로, 변동을 인정하고, 그 원리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16)

- (a) ㄴ이 ㄹ 우에서나 앞에서는 ㄹ로 변함(본) 천千里 팔八年年 歐洲말에 ㄴ音 이 ㄹ을 만나되 其 ㄴ을 억지로 발음함으로 ‘턴연헌 리세’를 잃더라(p.29)
- (b) ㅁ이 ㄱ 우에서는 ㄴ혹 ㅇ으로 변함논니 … 이는 속에서 이리케 불으는 것이나 본음디로 발할 수 잇는 것인디 이리케 변함도 얼마큼 ‘턴연의 리세’로서 되는 것이니라(p.29)
- (c) ㅍ가 ㅎ 외에 닳은 즈음 우에서는 그 자리에서 ㅂ 소리만 나고 그 알에 子音은 탁음을 만들어 주며 … ‘音義’에는 당연이 이리헌디 … (본) ‘덧고’는 ‘턴연의 음’디로는 ‘덧코’가 될 터인디 우리 국어 례습으로는 ‘덧고’라 ㅎ는…(p.30)

(a)의 언급은 이른바 ‘설측음화’ 또는 ‘유음화’라고 하는 동화 현상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한 변동이 발생하는 기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제의 소리들이 가진 원래의 자연적 성질상 그렇게 바뀌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ㄴ, ㄹ과 같은 소리들의 성질에 따라, 즉 ‘턴연(天然)헌 리세(理勢)’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개별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b)의 언급은 ‘감기’가 [강기]와 같이 발음되는 동화 현상이 수의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턴연의 리세’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다. 문제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이치상 그렇게 된다고 본 것이다.

(c)는 주시경 선생의 자연 과학적인 인식의 틀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는 언급이다. ㅍ가 자음 위에서 ㅂ으로 발음된다는 것은 중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자음을 탁음[격음]으로 만들어 준다는 언급은, ㅍ이 ㅂ과 ㅎ의 합음이라고 분석한 원리를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 ㅍ이 ㅂ으로 바뀌면 ㅎ이 남게 되니, 이 ㅎ이 다음 자음을 격음으로 만든다는 논리이다. 이

에 따라 ‘덥고(覆)’는 [덥코]로 발음되는 것이 ‘天然의 音’대로 되는 것이고, ‘音義’에 맞는 것인데, 습관적으로 [덥고]로 발음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보아, 주시경 선생은 음의 동화와 같은 음운 변동에 대해 그 기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문제의 음이 가진 자연적 성질의 이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보는 정도의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의 두 경우는 ‘특정한 음이 가진 성질’에 대한 더 이상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천연한 또는 천연의 이세’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식의 막연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c)의 경우는, ‘교’의 원소적 성분(ㅂ과 ㅎ)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있었으므로, ‘천연의 음’대로 하면, ㅎ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고, [덥코]처럼 발음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ㅍ과 그것의 원소인 ㅂ, ㅎ을 자연 과학적 개념의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가능해진다. 그러한 관점에서만, ㅍ이 ㅂ으로 바뀔 때 ㅎ이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자음을 격음으로 바꾼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주시경이 언급한 ‘턴연훈 리세’, ‘턴연의 리세’, ‘天然의 音’, ‘音義’ 등은 ‘자연 과학적 합리성’이란 개념으로 정리된다.

### Ⅲ. 방법론적 논리성: 분석성과 체계성

주시경 문법은 자연 과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시경이 보인 독창성의 배경도 자연 과학적 방법론, 특히, 수리학적 방법을 국어 연구에 적용한 결과였다(이기문, 1987(1976): 588-89). 그것은 원소적인 기본 단위를 확정하고 이들의 복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러한 원소들의 합성이라고 기술하는 방식이다.<sup>12)</sup>

12) 주시경은 자연 과학에 대해 두루 공부할 기회를 가졌었다. 주시경은 1894년에서 1900년까지 배재학당에서 萬國地誌 특별과와 보통과를 공부하여 졸업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문법과 문자 체계에 대한 안목을 키웠다. 그리고 1906년에서 1909년까지는 柳一宣이 설립한 數理學 전문 교육기관인 精理舍에서 3년간 數理學 공부를 하였다

그것은 곧 주시경의 문법 기술 방법이 지극히 분석적이며 체계적이라는 뜻이다. 분석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구성 요소들을 묶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석 방법이 여러 층위(level)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분석적(analytic)의 상대 개념인 총체적(global)이라는 개념은 구조화된 총체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총체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기 이전의 이해 과정이라고 본다면, 주시경의 국어학 서술 방법은 총체적인 것이 아니고 분석적인 것이며 체계적인 것이다. 국어 구조의 각각의 층위에 일정한 기본 단위를 설정하고 그 원소적 기본 단위에 의하여 분석하면서 기술하고 나아가서 같은 방법이 모든 층위의 서술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와 같은 수리 과학적 방법론의 도입은 문법 기술에서의 논리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 못지 않게 추상적이고 엄밀한 자연 과학적 논리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시경의 초기 문법서에도 이러한 분석성과 체계성의 단초가 드러난다. 우선 어간과 어미가 각각 구분되는 뜻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간에도 독립적인 뜻이 있고 어미에도 그러한 뜻이 있다는 인식이다. 다음의 두 인용문에서 그러한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 (17)

우리말의 음더로 洗는 ‘씻’이요 信은 ‘믿’이요 任은 ‘맡’이요 覆는 ‘덮’이요 裂은 ‘썩’이요 從은 ‘좃’이요 好形容은 ‘좋’이요 削은 ‘짜’이며 ‘어도’와 ‘으면’과 ‘고’와 ‘는’은 이 우 먹喫즈 줄에 희석함과 같이 다 각” 그 뜻이 지지흔 즈어늘 그 원테와 본음이 다 각” 이러함은 불계호고 속에서 굶웃 씹이 우에 렬륙(흔) 함과 같으니 엇지 지석흔 배 | 안이리요(p.17)

‘어도’는 그 뜻이 雖즈와 같고 ‘으면’은 그 뜻이 若즈와 같으니 다 즈음 알에 쓰는 것이요 ‘고’는 그 뜻이 而즈와 같고 ‘는’은 그 뜻이 之즈와 같으니 다 즈(음) 알에 통용호는 것인디(p.16)

13) 주시경의 국어 연구방식이 분석적이며 체계적이라는 것은 이에 대한 모든 앞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이병근(1985: 26)에서 요약하여 옮겼다.

예를 들어, ‘씻어도’라는 말의 ‘씻’에는 [洗]의 의미가 있고, ‘어도’에는 [雖]의 의미가 있어,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둘은 문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싹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간과 어미에 대한 이러한 의미론적 인식은 어간도 하나의 요소요 어미도 하나의 요소이며, 그것들이 합하여져 더 큰 구성 요소를 이루어 나간다는 기술 방법론으로 나아가간다. 이는 어간과 어미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바탕으로 문법을 기술해 나가는 방법론이다. 어간과 어미는 각각 구분되는 요소이고, 통합되면 더 큰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것들이 섞이어 구분되지 않는 형태는 용납될 수 없다.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야만 그것들의 원체와 본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인용한 내용을 다시 인용한다.

(18)

씻어도, 미더도, 마타도 ... 류類는 련속호는 음은 옳으나 웃조 종성을 알엿조 초성으로 옮겨서 ‘씻’은 ‘찌’가 되고 ‘믿’은 ‘미’가 되고 ... ‘어도’나 ‘아도’는 ‘서도’ ‘더도’ ... 로 변호엿으니 상하조의 본음과 원테를 다 잃고 그 본조대로 각 〃 쓰는 법을 잃음이요 ... (p.18).

주시경은 요소들 하나 하나의 실체와 기능에 대한 인식을 투철히 하였으므로, 요소들끼리 결합하되 구분되지 않고 섞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어간과 어미는 서로 결합하는 것이지만, 요소들끼리 혼성되어 버리면 더 이상 체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해지므로, 원래의 형태와 소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시경은 특히 말 소리 분석에서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구성 요소들을 묶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을 집요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는 말의 소리를 ‘원소’와 ‘합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라.

(19)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이 여섯조는 다시 난홀 수 업는 순일호 모음인디 이것이 국문 모든 모음의 근본이요 또 가이 텃디간 조지호 모든 모음 분별의 근본이 되느니



수학에서처럼 모든 가능한 조합의 경우를 따져서 그 빈간을 다른 경우의 조합 방식에 유추하여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는 구체적인 자료로 실마리를 얻고 지극히 추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곤 하였던 것이다.

주시경의 문법서 여기 저기에는 말과 글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섞어 말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다음과 같은 기술은 언어와 문자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않은 가운데서 ‘원소와 합음’의 체계를 집요하게 적용하려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21)

나는 ㄱ의 합음이요, 너는 ㄴ의 합음이요, 나는 ㄷ의 합음이요, 내는 ㄹ의 합음이니 여 방초흔니라(p.21)

‘원소와 합음’의 체계는 자음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음이 그 일부의 예와 증거로 제시된 내용이다.

(22)

ㄱ은 ㄱ의 탁음이니 ㄱ ㄱ중의 합음이요  
 ㄷ은 ㄷ의 탁음이니 ㄱ ㄷ중의 합음이요  
 ㅍ은 ㅍ의 탁음이니 ㄱ ㅍ중의 합음이요  
 ㅈ은 ㅈ의 탁음이니 ㄱ ㅈ중의 합음이요(pp.26-7)

(23)

이 알에 이 증거의 모본의 대상을 기록흔노라.  
 薄荷박하를 連讀하면 바카요 … 좋다를 連讀하면 조타요… 入學입학을 連讀하면 이팍이요… 좋지 안타 連讀하면 조치 안타요…(p.27)

예를 들어, ㄷ은 ㄷ ㅎ의 합음인데, ‘좋다’가 [조타]로 발음되는 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당시의 학문적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주시경의 문법 기술에서도 언어와 문자의 혼동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와 같은 상황에서 ‘원소와 합음’ 체계의 집요한 적용은 오류를 낳게 되기도 한다.<sup>17)</sup>

(24)

ㅎ은 ㅎ의 탁음이니 ㄱ ㅎ의 합음이요(p.27)

ㅎ을 ㅎ ㅎ의 합음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식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얼버무리고 있다.<sup>18)</sup>

(25)

ㅎ가 ㅎ ㅎ의 합음되는 것은 아직 고만두거니와 의례이 밀어 알지니라(p.27)

‘원소와 합음’ 체계의 일관된 적용은, 언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순수히 논리적인 추론이나 오해와 불확실한 증거에 의한 논증을 낳게 된다. 아래 인용문은 주시경이, ㅅ의 음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ㄱㅎ의 합음이라고도 하고, ㅅㅇ의 합음이라고도 하는 등, 끊임 없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6)

ㅅ는 訓民正音터로 ㄱ의 탁음이리니 ㄱ ㅎ의 합음이리라(p.27)

ㅅ는 洪武正韻에 半徵半商이라 ㅎ을 이것으로 표ㅎ었고 훈민정음에 齒音商音이라 ㅎ었고 … ㅅ은 齒音이요 ㅇ는 喉音이라 그런즉 ㅅㅇ疑의 ㅎ성이라는 합음이니라(p.24)

그리고 다음은 주시경 선생이 ㅅ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어떤 책인지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불경에서 ㅅ이 초성으로 쓰인 몇몇 단어들(日시 人신 菴심 등등)을 그것의 上海音과 日本音 그리고 胡文煒라는 중국인의 발음 등을 조사한 후 ㄱ과 ㅎ의 합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는 과정을 보여 주

17) 주시경의 음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박영환(1985)를 참고하라.

18) 이와 같은 주장은 1908년에 간행된 『국어문전음학』에 와서 수정된다.



아니라, 끝 부분이 미완성이다. 언분(言分)이란 이름 아래 7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유형과 정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29)

명호(名號) 각종 물건들과 여러 가지 볼 수 업는 바를 일흠호여 부르논 것  
형용(形容) 형용호는 것들

동작(動作)

간접(間接) 혼 말이 달은 말을 이어지게 호는 것들

인접(引接) 명호 아리 쓰는 것들인디 동작을 인도호여 되논 것을 가르치논 것들  
경각(警覺) 무슨 의외에 감정이 일어나 스스로 놀나논 것

조성(助成) 명호나 동작이나 형용을 도아 한 말을 맞치논 것들

‘명호’의 예로 제시된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인데, ‘씀, 쓰기’ 등과 같은 명사형도 들어 있다. ‘명호’를 ‘원명(原名)’과 ‘대명(代名)’으로 나누고, 명사는 ‘원명’에, 대명사와 수사는 ‘대명’에 넣고 있다. ‘원명’과 ‘대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0)

원명 - 각종 물건과 바탕 업는 것을 붙으논 것들

대명 - 원명을 대신호여 붙으논 것들

‘형용’의 예로 제시된 것은 전부 관형사형이다. ‘귀호, 무른, 높호, 단단호, 무거운’ 등과 같이 대부분이 형용사의 관형사형이고, ‘가논, 먹논’과 같이 동사의 관형사형도 2개 있다. ‘한, 둘, 셋’과 같이 수사 또는 관형사도 있다.<sup>21)</sup> 그리고 ‘그, 저, 이’와 같이 관형사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우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간접’과 ‘조성’이다. 전자는 연결 어미나 접속

20) 주시경의 『국문문법』의 품사 체계와, 당시에 주시경이 참고했으리라고 짐작되는 국내의 문법서들의 품사 체계와의 비교는 최낙북(1988)을 참고하라.

21) 관형어로 쓰일 수 있어야 하므로, 수사로만 쓰이는 ‘둘, 셋’은 합당한 예가 아니다.

조사 등과 같이 ‘접속’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종결 어미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세하지는 않으나 단어의 실사 부분과 허사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 품사의 자격을 주는, 이른바 ‘분석적 체계’를 지향하고자 함이 드러난다.

분석적 체계는 단어 또는 낱말이라는 형태론적 단위의 구성보다는 통사론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문법 기술 태도이다. 실사 부분과 허사 부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므로, 단어 그 자체의 형성, 즉 조어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단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사론적 기능을 중시하면, 단어에서 허사 부분은 분리·독립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는 접속이나 종결과 같은 다양한 통사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sup>22)</sup>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을 합쳐서 명호라는 하나의 품사로 묶은 것과, ‘명호’를 ‘원명(原名)’과 ‘대명(代名)’으로 나누고, 명사는 ‘원명’에, 대명사와 수사는 합쳐서 ‘대명’에 넣은 것도 통사적 기능을 중시한 결과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라는 공통적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과, 대명사와 수사를 ‘원명을 대신하여 붙는 것’이라는 ‘대명’에 소속시키고 있는 점 등도 통사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실사와 허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낱말로 보고 ‘형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도 통사적 기능을 중시하는 주시경 문법의 한 특징이다.<sup>23)</sup>

22) 주시경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문법서인 『국어문법』(1910)에 오면, 이러한 통사적 기능 중시의 태도가 철저히 구현된다. 박종갑(1994b, 1995b, 2002)에서는, 『국어문법』의 문법 모형의 한 하위 체계로, ‘통사론적 형태론의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형태론과 통사론을 구분하되 통사론을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준거(準據) 안에서 형태론을 기술하는 이론 체계로서, 통사론 우위의 문법 모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박종갑의 위의 논문들을 참고하라.

23)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이른바 ‘변법소’들을 품사의 단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어문법』에서도 마찬가지다. 허사들을, 그것이 수행하는 통사적 기능의 내용에 따라, 차별하여,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등은 ‘기’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전성 어미는 ‘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통사적 기능도 그 내용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것은 품사 분류와 같은 형태론적 영역에 통사적 기능과 같은 통사론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된다. 자세한 것은 박종갑(1994c)를 참고

## V. 결론

본고는 국어 문법에 대한 주시경의 초기 연구에 해당되는 두 문헌, 『國文文法』과 『대한국문법』을 대상으로 하여, 주시경이 우리말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지향하고자 했던 문법 모형을 추적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해당 문법가가 취하고 있는 언어관과 문법관, 문법론의 연구 대상, 연구 방법론 등을 구명하였다.

언어관은 언어가 음성과 의미로 이뤄진다는 기본적인 인식 외에, 언어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법관은 ‘원체와 본음과 법식’과 ‘천연의 이세’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두 주제는 주시경의 초기 연구에서 핵심적 탐구 대상이 된 것인데, 전자는 ‘논리적 합리성’, ‘방법론적 합리성’, 그리고 ‘과거 지향적 순수성’이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자연 과학적 합리성’이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 방법론적 특징으로는, 초기 연구에서부터, 분석성과 체계성이라는 두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원소와 합음’이라는 개념적 틀로 정리하였는데,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일관되고 집요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품사 분류적 연구에서는, 이른바 분석적 체계를 지향하고, 통사적 기능을 중시하는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구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른 ‘통사론적 형태론의 출발’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 문법모형(grammatical model), 분석적(analytical), 체계적(systematic), 통사적 기능(syntactic function)

## 참고 문헌

---

하라.

- 강복수(1972), 《국어문법사연구》, 형설출판사.
- 고영근(1982), 주시경의 문법이론에 대한 형태·통사적 접근, 《국어학》11, 25-46.
- 고영근(2001), 《한국의 언어연구》, 도서출판 역락.
- 고영근·이현희 校註(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담.
- 김민수(1986), 《주시경 연구》, 증보판, 탑출판사.
- 김민수(1988), 주시경 「國文文法」 譯註, 『주시경학보』1, 212-29.
- 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1977), 《歷代韓國文法大系》, 탑출판사.
- 박영환(1985), 주시경의 음운론, 《語文論志》,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글학회 편, 1987:97-108에 재수록).
- 박종갑(1994a), 주시경과 최현배의 문법 모형 비교 연구(1), 《우리말의 연구》, 우골담, 347-62.
- 박종갑(1994b), 주시경의 《국어문법》 연구(1):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영남어문학》25, 193-214.
- 박종갑(1994c), 주시경의 《국어문법》 연구(2):몇몇 문법형태소의 <기> 처리 방식에 대하여, 《한글》225, 199-219.
- 박종갑(1995a), 주시경의 《국어문법》 연구(3):우권점으로 표시된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국어학》25, 267-92.
- 박종갑(1995b), 주시경과 최현배의 문법 모형 비교연구(2), 《영남어문학》28, 15-53.
- 박종갑(2002), 주시경 문법의 문법 모형 연구(1):《국어문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40, 41-58.
- 박태권(1978), 주시경 지은 《대한국어문법》의 국어학사적 위치, 과학사, (한글학회 편, 1987:97-108에 재수록).
- 이기문(1976),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학보》5, 일지사, (한글학회 편, 1987:573-92에 재수록).
- 이병근(1985), 주시경, 김완진·안병희·이병근(1985), 《국어연구의 발자취》,

대학교양총서 17, 서울대학교 출판부, 제1장(pp.3-57).

이현희(1989),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譯註, 『주시경학보』3, 217-54.

주시경(1905), 《국문문법》(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1977), 제1부 제39책).

주시경(1906), 《대한국어문법》(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1977), 제1부 제3책).

주시경(1908), 《國語文典音學》(김민수·고영근·하동호공편(1977), 제1부 제4책).

주시경(1910), 《國語文法》(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1977), 제1부 제4책).

주시경(1914), 《말의 소리》(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1977), 제1부 제4책).

최낙복(1988), 주시경 말본의 형태론 연구, 박사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한글학회 편(1987), 《주시경 선생에 대한 연구논문 모음》1.

허웅(1971), 주시경 선생의 학문, 《동방학지》,12(한글학회편(1987:1-73)에 재수록).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